■ 민족문화연구 제97호(2022.11.3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1-34.
http://doi.org/10.17948/kcs.2022..97.11

【 특집 : 『金石集帖』의 종합적 연구 2 】

金在魯家『金石集帖』纂輯 연구*

박철상(朴徹庠)**

목 차

1. 시작하는 말
2. 김재로 纂輯의 탁본첩『金石錄』
3. 목록집『金石錄』
4. 탁본첩『金石錄』과 탁본첩『金石集帖』의 관계
5. 맺음말

국문초록

일본 교토대학이 소장하고 있는『金石集帖』은 현전하는 조선시대 최대 규모의 금석문 탁본첩이다. 이 탁본첩의 존재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명확히 연구된 바 없다. 특히 이를 언급한 이전의 논문들은『金石集帖』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이 탁본첩의 찬집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기존의 오류를 바로잡고『金石集帖』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와 관련된 탁본첩『金石錄』및 목록집『金石錄』을 재검토하고, 탁본첩『金石錄』과『金石集帖』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탁본첩『金石錄』은 김재로가 찬집하였고, 목록집『金石錄』은 김재로가 1차 정리하고 그의 후손들이 2차 增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목록집『金石錄』에 따라 탁본첩『金石集帖』이 제작되었는데, 탁본첩『金石集帖』의 제작을 누가, 언제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따라서『金石錄』과『金石集帖』은 별도의 금석문 탁본첩으로 인식해야 한다.

주제어: 金石集帖, 金石錄, 金在魯, 欽欽軒, 金石學.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2A03068401)

** 한국문헌문화연구소 소장.

1. 시작하는 말

교토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金石集帖』은 현전하는 조선시대 최대 규모의 금석문 탁본첩이다. 그 존재와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소개된 바 있고[1], 일본 후지모토 유키오(藤本幸夫) 교수 또한 그 상세한 목록을 소개했다.[2] 최근에는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조사하고 분석한 논문도 제출되었다.[3] 필자는 일찍부터 『金石集帖』에 관심을 가지고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4] 특히, 김재로의 금석문 목록집 『金石錄』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하고 그 의미를 확인하였다. 다만, 실물을 확인할 기회를 얻지 못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해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필자가 주목한 것은 김재로가 찬집한 탁본첩 『金石錄』과 목록집 『金石錄』 및 또 다른 탁본첩 『金石集帖』의 관계다. 김재로가 찬집한 탁본첩 『金石錄』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 일인 학자들이 그 존재를 보고한 바 있다.[5] 이후 김재로가 찬집한 탁본첩 『金石錄』은 조선 금석학사에서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한 의미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탁본첩 『金石集帖』의 전모를 확인하면서 김재로의 탁본첩 『金石錄』과 목록집 『金石錄』 및 탁본첩 『金石集帖』은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도 많은 오해에 싸여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탁본첩 『金石集帖』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찬집의 선후관계, 구제적으로 말하면 『金石集帖』의 찬집 과정을 규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본 논고에서는 김재로의 탁본첩 『金石錄』 및 목록집 『金石錄』을 재검토하고, 탁본첩 『金石集帖』의 찬집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현전하는 김재로 찬집의 탁본첩 『金石錄』의 국내외 현전본을 조사하여 향후 연구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

1) 朴眞完, 「朝鮮金石文集成『金石集帖』(京大本)の基礎的研究」, 『京都大學朝鮮・韓國學教育研究ネットヮーク報告書・記錄集』(2004年度), 京都大學朝鮮・韓國學教育研究ネットヮーク, 2005.3.; 박진완, 「京都大學 부속도서관 소장 『金石集帖』자료 현황」, 『해외사료총서15—일본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Ⅲ—』, 국사편찬위원회, 2007.12.

2)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史部』, 서울, 동국대출판부, 2018.

3) 심경호, 「교토대학 소장 금석집첩(金石集帖)에 대하여」, 『민족문화연구』 8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9.

4) 박철상, 「朝鮮時代 金石學 硏究」,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2014.

5) 葛城末治, 『朝鮮金石攷』,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9, 20면.

2. 김재로 纂輯의 탁본첩『金石錄』

金在魯(1682-1759)가 편찬한 탁본첩『金石錄』에 대해서는 일본인 학자 가쓰라기 스에하루(葛城末治)가 처음 언급하였다. 그는 탁본첩『金石錄』을 조선의 대표적인 금석문첩으로 거론하면서 원집이 226책, 속집이 20책, 총 246책인데 39책이 현존하고 있다고 하였다.[6] 김재로의 자는 仲禮, 호는 淸沙, 본관은 淸風이며, 영의정까지 지낸 문신으로 시호는 忠靖이다. 그가 金石帖을 모았다는 말은 實錄의 기록에도 보인다.[7] 이후 이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한 연구자는 없었다. 필자는 이를 근거로 탁본첩『金石錄』을 추적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내용을 새롭게 확인하였다.[8]

① 葛城末治가 현존한다고 언급한 탁본첩『金石錄』39책이 과연 김재로가 찬집한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그 근거로 兪晩柱(1755-1788)의『欽英』〈1782년 7월 23일〉조에 보이는『금석록』에 관한 언급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금석록』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다. 내가 본 것으로는「欽本」,「尹本」,「桂本」,「蘭本」,「閣本」이 있다. 비록 서로 우열이 있긴 하지만 故實을 징험하고 史傳을 바로잡을 만하므로 없앨 수가 없다.[9]

이를 근거로 볼 때 1782년 무렵에 이미 5종의『金石錄』이 존재했으므로 김재로의『金石錄』이 과연 무엇인지 확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다만, 39책본『金石錄』이 규장각에 현전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葛城末治가 언급한 39책짜리『金石錄』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② 규장각 소장본 탁본첩『金石錄』의 書背 하단에서 '欽欽軒'이라는 墨書를 찾아내, 이를 김재로『金石錄』판단의 기준으로 처음 제시하였다. 아울러 '欽欽軒'이

6) 葛城末治,『朝鮮金石攷』,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9. 20면.
7)『英祖實錄』〈32년 9월 5일〉. "遣史官問于領府事金在魯、判府事兪拓基, 以二臣多識古事, 又素蓄金石帖, 故或意知人之所不知, 有下問也."
8) 박철상,「조선금석학사에서 유득공의 위상」,『대동한문학』27, 대동한문학회, 2007.
9) 兪晩柱,『欽英』4(영인본), 서울대 규장각, 1997, 367면. "『金石錄』東國亦多有之. 余所見者,「欽本」「尹本」「桂本」「蘭本」「閣本」, 雖互有優劣, 而亦足以徵故實訂史傳, 不可廢也."

묵서된 『金石錄』으로 고려대학교 도서관 육당문고 소장 28책과 개인소장 5책의 존재를 확인 후, 葛城末治가 언급한 39책과 함께 김재로의 『金石錄』이 모두 72책[10] 현전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흠흠헌'본이 바로 유만주가 언급한 「欽本」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후 김재로가 찬집한 탁본첩 『金石錄』의 目錄集 『金石錄』을 소개하는 논문이 발표되었다.[11] 논문에 따르면 목록집 『금석록』은 '天朝'부터 '釋寺'까지 3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권은 千字文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226책에 2,265점의 탁본이 수록되었다고 했다.[12] 특히 목록집 『금석록』의 마지막 장에 적혀 있는 '以上二百二十六冊內續爲二十冊'이라는 기록을 근거로 226책에 속집 20책이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즉, 원집이 206책, 속집이 20책, 총 226책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김재로의 탁본첩 『금석록』이 원집 226책, 속집 20책, 총 24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葛城末治의 주장을 반박했다.[13] 이에 따라 필자는 박사학위논문을 쓰면서 『금석록』을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하였다.[14]

① 규장각 소장 39책본 『금석록』을 다시 확인해보니 書背에 '欽欽軒'이라는 글자는 없고, '摛文院' 장서인이 있었다. 따라서 이전에 김재로의 탁본첩 『금석록』으로 알려진 것은 오류다. 대신 '欽欽軒' 墨書가 있는 214번째 책이 따로 있다. 또 개인소장본도 한 책이 더 확인되었다. 따라서 장서인과 書背의 '欽欽軒' 墨書로 확인한 김재로의 탁본첩 『금석록』은 육당문고 28책, 개인소장 6책, 규장각 소장 1책 등 모두 35책이다.[15]

② 유만주가 봤다는 우리나라 탁본첩 『金石錄』 5종 중 「欽本」은 김재로, 「蘭本」은 유척기, 「閣本」은 규장각 소장 39책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③ 탁본첩 『금석록』의 편차와 목록집 『금석록』의 편차가 전혀 달라서 목록집

10) 이때까지만 해도 葛城末治가 언급한 김재로 『金石錄』 39책의 존재를 확정적으로 부정하지 못했다.
11) 구자훈·한민섭, 「金在魯 『金石錄』의 구성과 그 특징」, 『韓國實學硏究』 21, 民昌社, 2011, 237-302면.
12) 목록 판독에 오류가 있으므로, 실제 숫자와는 차이가 있다.
13) 葛城末治는 226책 외에 속집 20책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14) 박철상, 「朝鮮時代 金石學 硏究」,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2014.
15) 이때에서야 葛城末治가 언급한 김재로 『金石錄』 39권의 존재를 확정적으로 부정했다.

『금석록』을 근거로 탁본첩 『금석록』의 수량을 확정하는 것은 무리로 보인다. 더욱이 현전하는 탁본첩 『금석록』의 표지 능화문이 전혀 다른 형태인 경우도 있어 몇 차례에 걸쳐 成冊된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해, 목록집 『금석록』의 표지는 정조 또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④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京都大學 附屬圖書館에 소장된 탁본첩 『金石集帖』에 주목해야 한다. 일본 京都大學 附屬圖書館에는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金石集帖』이 남아 있다. 편자 미상의 탁본첩으로 현재 219첩이 남아 있는데, 김재로의 탁본첩 『금석록』과 마찬가지로 금석문 전체를 잘라 책으로 형태로 붙여 만든 것이다. 한편 규장각에도 『金石集帖』 1책이 전하고 있다.[16] 書根에는 '得 金石集帖 閭巷'이라 墨書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 京都大學 附屬圖書館 소장 『金石集帖』과 표제 글씨는 물론 편제까지 완전히 동일한데, 그곳에는 이 책이 누락되어 있다. 이는 규장각본 『金石集帖』이 일본 京都大學附屬圖書館 소장 『金石集帖』에서 누락된 책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수록된 碑文은 고려대학교 소장 목록집 『금석록』의 '得'자 부분에 수록된 목록과 일치하고 있다. 이는 일본 京都大學附屬圖書館 소장 『金石集帖』이 金在魯家 목록집 『금석록』에 따라 제작된 탁본첩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金在魯家에서는 탁본을 모으는 대로 탁본첩 『금석록』을 만들었고, 이를 근거로 목록집 『금석록』을 만든 다음, 다시 목록집을 근거로 탁본첩 『金石集帖』을 만들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김재로가 찬집한 탁본첩 『금석록』이 원집 226책, 속집 20책, 총 24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 葛城末治의 주장은 목록집 『금석록』을 근거로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는 『금석집첩』에 대한 기록이다. 따라서 김재로의 탁본첩 『금석록』 전체 규모를 현재로서 확인할 길은 없다. 다만, 김재로의 탁본첩 『금석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書背 하단에 '欽欽軒'이라 墨書되어 있고, 일부에는 〔淸風世家〕, 〔欽欽軒藏書〕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다. 그러나 장서인이 없는 경우가 많다. 주로 번호가 앞선 책에 장서인이 남아 있는 걸로 볼 때 초기에 제작된 탁본첩 『금석록』에만 장서인을 날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표제는 '金石錄'이고, 표제 밑에는 연번이 숫자로 묵서되어 있다. 이 숫자는 書根에도 묵서되어 있다. 표지면 우측 상단에는

16) 청구기호: 古大 4016-8

탁본첩『금석록』에 수록된 금석문의 제목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수록된 개별 금석문의 표기가 '姓 + 官職名 + 비석형태(碑,表,碣)'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때문에 제목만으로 볼 때 누구의 비문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목록집『금석록』이 편찬될 때 '官職名 + 姓 + 公 + 名 + 비석형태(碑,表,碣)'의 형식으로 변화된다. 예를 들어,〈朴都正碣〉이 목록에서는〈敦寧都正朴公泰長碣〉로 변경되었고, 탁본첩『금석집첩』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장서인〈淸風世家〉



장서인〈欽欽軒藏書〉

이러한 기준을 통해 김재로가 纂輯한 탁본첩『금석록』은 모두 38책이 확인된다.[17] 이전에 확인된 자료에 국내 박물관 소장 1종, 해외기관 소장 2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지금까지 확인된 탁본첩『금석록』중에서 순서가 가장 늦은 卷次는 '214'이다. 이는 김재로의 탁본첩『금석록』이 최소 214권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김재로 탁본첩『금석록』현전 현황

권차	수량	소장처	표제면 기록	장서인/장서기	목록집『금석록』수록 여부
13	1	서울역사 박물관	1. 華山書院碑 2. 黃山書院碑 3. 莘巷書院碑 4. 滄洲書院碑	欽欽軒 墨書 장서인:【欽欽軒藏書】	克(205) 成 (27) × 恃(182)

17) 필자가 이전에 개인소장으로 확인했던 일부가 지금은 박물관 소장으로 변경되었다.

61	1	개인 소장	1. 任參贊碣 (任暎) 2. 李咸悅表 (李惟謙) 3. 李參判碣 (李時芯) 4. 李監司碑 (李星徵) 5. 李參判碣 (李泂) 6. 金參議表 (金耆)	欽欽軒 墨書 장서인 :【淸風世家】, 【欽欽軒藏書】	× × × × × ×
93[18]	1	일본 早稻田大學	1. 孫昭 2. 許曄 3. 尹暄 4. 黃佑漢	欽欽軒 墨書	× 雲(33) 羊(200) 有(93)
119[19]	1	서울역사 박물관	1. 尹觀察碑 (尹鳴殷) 2. 睦參議表 (睦大欽) 3. 南觀察表 (南翊) 4. 朴都正碣 (朴泰長) 5. 李府尹碑 (李廷鸞) 6. 表	欽欽軒 墨書	垂(109) 垂(109) 拱(110) 鳳(130) 聖(208) 聖(208)
131	1	수원박물관	驪陽府院君(碑) (閔維重) 慶恩府院君表 (金柱臣)	欽欽軒 墨書	壹(123) 壹(123)
154	1	서울역사 박물관	仁廟誕降舊基碑 旌烈寺[20]碑 三印臺碑 兪摠管遺墟碑 金自菴謫廬碑 (金緅) 遯巖書院碑	欽欽軒 墨書	洪(7) 恃(182) 談(178) × 彼(179) 能(174)
174	1	개인소장	御筆	欽欽軒 墨書	
176	1	개인소장	鄭直學表 (鄭賜) 曹副學碣 (曹尙治) 3. 朴江叟碑 (朴薰) 4. 洪副學表 (洪柱國)	欽欽軒 墨書	黎(115) 坐(105) 餘(26) 平(111)
212	1	일본 교토 高麗美術館	1. 李鳳山碑 (李郁) 2. 表 3. 金星州表 4. 金水原碣 5. 吳○○表 6. 尹僉正表	欽欽軒 墨書	貞(163) × × × 미상 ×

18) 『일본 와세다대학도서관 소장 한국전적』(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0)의 「史部・金石類」 149번에는 『金石錄』이 수록되어 있다. 다만,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 表題 墨書의 확인이 어렵다. 다행히

214	1	규장각 (古4016 -4-2)	1. 金庶尹表 (金璠) 2. 碣 3. 任原州碣 (任夢臣) 4. 權判校表 (權瑜) 5. 金正郎碣 (金統) 6. 南議郎表 (南景文) 7. 權佐郎碣 (權得己) 8. 朱正郎表 (朱宅正) 9. 李佐郎碣 (李慶流)	欽欽軒 墨書	× × × 戎(119) 黎(115) 食(135) 雲(33) 戎(119) 慕(162)
미조사[21]	28	고려대학교 육당문고	미조사	欽欽軒 墨書 장서인 : 【淸風世家】, 【欽欽軒藏書】	미조사
합계	38				

※ ( )는 필자가 추기한 것임.

3. 목록집『金石錄』

김재로가 纂輯한 탁본첩『金石錄』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봤는데, 그 탁본첩『金石錄』의 目錄集인『金石錄』을 소개하는 논문이 발표되었다.[22] 논문에 따르면 목록집『금석록』은 '天朝'부터 '釋寺' 까지 3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권은 千字文 순으로 되어 있으며, 226책에 2,265점의 탁본이 수록되었다고 한다. 특히 목록집『금석록』의 마지막 장에 적혀 있는 '以上二百二十六冊內續爲二十冊'이라는 기록을 통해, 226책에 속집 20책이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즉, 원집이 206책, 속집이 20책, 총 226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목록집『金石錄』의 항목에 있는 '本宗先世 傍親'에 수록된 탁본과 이들 탁본에 대한

해제 내용을 통해 수록된 비문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내용은 동 해제 내용을 옮긴 것이다.

19) 前面紙에 수록 비문의 목록이 있는데 〈南觀察諱表〉, 〈朴都正泰長碣〉에는 '無'자를 써넣었고, 실제 탁본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20) '祠'의 誤寫다.

21) 표제 하단 연번 숫자 위에 종이를 다시 붙여서 본래 숫자를 확인할 수 없다. 이들 종이는 후대에 붙여진 것이므로 모두 제거한 후 본래 숫자를 확인해야 한다. 실견한 결과 알려진 대로 28책이 현전하고 있고, 별도로 12책이 있는데 제대로 책의 형태를 갖추지 못해 온전하지도 않고 일부 남아 있던 탁본을 묶어놓은 것도 있어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김재로의『金石錄』이『金石集帖』으로 개편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자료들로 보인다.

22) 구자훈·한민섭, 앞의 글, 2011 참조.

표기가 '先考忠憲公碑表', '伯氏參判公表' 등인 점을 통해 탁본첩 제작의 주체가 김재로임을 밝혀놓았다.[23] 따라서 목록집『금석록』이 김재로가 만든 탁본첩『金石錄』과 관계된 것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續集에 수록된 비문의 경우 김재로 사후에 세워진 비문의 탁본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데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書背에 '欽欽軒' 墨書 기록이 있는 탁본첩『金石錄』214번째 1책이 규장각에 남아 있는데, 이는 원편이 206책이라는 기록과 배치된다. 따라서 이 목록집을 모두 김재로가 편찬했는지는 의문이다. 한편, 목록집『금석록』앞부분에는 남아 있는 總目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자 그대로 목록집『金石錄』에 수록된 금석문을 분류 항목대로 기록하고 항목을 수량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總目에 수록된 양이 206책인데 실제 수록된 건 226책이라는 점이다. 20책이 증가했는데, 모두 속집에 해당한다. 이는 目錄集『金石錄』은 탁본첩『金石錄』의 목록이 아니라, 탁본첩『金石錄』이 찬집된 이후 분류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목록집이라는 걸 의미한다. 이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의 내용을 근간으로 목록집『金石錄』의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김재로는 처음에 비문을 모으는 대로 장첩하여 탁본첩『金石錄』을 만들었다. 이는「散帙」아래 附記한 "當初隨得作冊不分類,故曰散帙."이라는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즉 처음에는 구하는 대로 책으로 만들었고, 따로 분류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② 따라서 이는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주 불편했을 것이다. 이에 34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정리를 시도하였다. 물론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도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쳤을 것이다. 이렇게 만든 것이 목록집『金石錄』總目에 실린 것이다. 총목에 따라 분류하고 목록을 기록한 것이다.

③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분류에 수정을 가한다. 먼저「天朝」항목을 없애고, 여기에 실려 있던 비문들은「散帙」卷 등으로 재분류한다. 따라서 항목이 33개로 줄어든다.

---

23) 忠憲公은 김재로의 부친 김구(金構, 1649-1704)의 諡號이다.

④ 다음으로 續集을 추가한다. 다만, 속집을 추가한 기준은 알 수 없다. 전체 편제 뒤에 속집을 둔 게 아니라, 항목별로 續集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하여 어떠한 기록도 없다.

⑤ 분류에 있어 '凡非墓碑'라는 항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墓碑'와 '非墓碑'를 분류하였고, 연대순, 인물별 분류가 아니라 주로 신분 중심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목록집『金石錄』의 제작이 掌故의 확인이나 異聞에 대한 지식 확대 및 碑文의 작성 및 제작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⑥ 전체 편제는 천자문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天'자에서 시작하여 '惡'자로 끝나고 있다. 따라서 숫자상으로 보면 227책이다. 그리고 편제상으로 續集은 正集과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각 항목의 뒷부분에 배속시켰다. 천자문 순으로 동일한 편제에 포함시킨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惡'자 옆의 附記에 '以上二百二十六冊內續爲二十冊'(이상 226책인데, 안에 續集이 20책이다)이라 한 것이다. 다만, '育'字(114) 옆에는 '闕'이란 부기가 있다. 본래 이 부분은「文堂上」항목의 續集으로 여기에는〈張參議崑表〉,〈金承旨濟謙表〉두 종이 실려 있었다. 그런데 하단에 '並入散帙卷'이라 부기하고, 위쪽에 '闕'字를 부기한 것이다. 이는 '育'字卷을 만들었다가 없앴다는 의미다. 또,「正卿」항목의 '河'字卷은 목록에서 누락되었다. 그렇다고 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金石集帖』에는 '河'字卷이 포함되어 있다, '河'字卷에는 8종의 탁본이 실려 있는데,[24] 이들 8종의 탁본은 목록집『金石錄』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는 애초에 누락되었다가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보충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목록집『金石錄』에도 附箋紙 형태로 추가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실제로 부전지 부착 흔적만 남아 있고, 현재 부전지는 남아 있지 않다.[25] 따라서 천자문 순으로 계산하면 속집이 21책, 정집이 206책, 총 227책이야 하지만, 실제는 속집이 20책, 전체 226책이 되는 것이다.

⑦ 중요한 것은 천자문순의 권차 표기를 누가 한 것이냐는 점이다. 34개 항목을 정하고 그에 따라 1차 분류를 시도한 것은 김재로였을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散帙」아래 附記한 "當初隨得作冊不分類,故曰散帙."이라는 기록 때문이다. 김재로가 아닌 제3자가 분류했다면 '當初'라는 문구 대신에 다른 문구가 들어갔을 것이다.

---

24)〈左贊成鄭公昜墓碑〉,〈吏曹典書連城君金公定卿墓表〉,〈禮曹判書成公石因墓表〉,〈戶判月川君金君吉通墓表〉,〈左贊成西平君韓公繼禧墓碑〉,〈工曹判書安公琛墓碑〉,〈戶曹判書李公自堅墓碣〉,〈刑曹判書潘公碩枰墓碣〉

25) 필자가 목록집『金石錄』을 확인해보니 실제 이 부분에 부전지가 있다가 탈락한 흔적이 있었다. '醎'字卷 수록 마지막 비문은〈判尹文胡李公坫表(無陰)碑〉이고, 하단에 '朴祥文 安士俊書'라 두 줄로 묶서했는데, '安士俊書'의 왼쪽 반이 잘려 나가고 없다. 이는 부전지 위에 겹쳐 썼는데, 부전지가 탈락하면서 왼쪽 반이 함께 사라졌다는 의미이다.

또한 부친 金構의 墓表 표기를 〈先考忠憲公碑表〉라 했는데, '先考'라 한 것으로 볼 때 작성의 주체는 김재로가 분명하다. 이는 1차 분류의 주체가 김재로임을 추정케 하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권차를 구분한 위쪽에 두 가지 표기가 있다. 하나는 붉은색 圈點이고, 다른 하나는 청색 千字文이다. 붉은색 권점은 새로운 권차가 시작되는 첫 번째 금석문의 머리에 표기되어 있는데, '續集'에는 없다. 반면에 천자문순 권차 표기는 正集과 續集에 모두 있다. 따라서 붉은색 권점은 처음 분류를 시도했을 때의 표기이고, 천자문은 찬집이 완료된 뒤 『金石集帖』을 제작할 때 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목록집 『金石錄』은 1차적으로 김재로가 편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續集은 김재로 사후에 후손들이 증보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수집한 금석문을 항목별로 '續'이란 이름을 붙여 배속하였고, 여기에 천자문 순으로 연번을 부여한 것이다.

[표 2] 목록집 『金石錄』의 총목 수량과 실제 수록 수량의 비교

연번	분류 명칭	總目 수량	실제 수록량			연번	분류 명칭	總目 수량	실제 수록량		
			합계	正	續				합계	正	續
1	天朝	0	×	×	×	18	遺逸,名蔭儒	4	4	4	
2	前朝,本朝	5	7	5	2	19	蔭官	8	9	8	1
3	嬪,後宮,宗室,公翁主	5	6	5	1	20	武將,武臣	5	6	5	1
4	本宗	4	9	4	5	21	儒士	4	5	4	1
5	先賢,學問	14	15	14	1	22	文蔭儒短折人	1	1	1	-
6	死節,節義	7	7	7	-	23	名文名筆	1	1	1	-
7	相臣	19	20	19	1	24	湖南人	1	1	1	-
8	正卿	25	26	25	1	25	嶺南人	1	1	1	-
9	亞卿	12	13	12	1	26	關西關北人	2	2	2	-
10	文堂上	10	11	10	1(0)	27	婦人	1	1	1	-
11	文堂下	5	5	5	-	28	世家	6	6	6	-
12	名臣	2	2	2	-	29	前朝人國初人	5	5	5	-
13	國舅	2	3	2	1	30	閭巷人	1	1	1	-
14	駙馬	2	2	2	-	31	凡非墓碑諸紀事	九	12	9	3
15	勳臣	2	2	2	-	32	戰功	1	1	1	-
16	蔭宰正從二品	1	1	1	-	33	散帙	29	30	29	1
17	蔭堂嘉善	1	1	1	-	34	釋寺	11	11	11	-
합계								206	227 (226)	206	21 (20)

4. 탁본첩『金石錄』과 탁본첩『金石集帖』의 관계

앞서 살펴봤듯이 탁본첩『金石錄』찬집 이후 이를 항목별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목록이 제작되었다. 바로 목록집『金石錄』이다. 그리고 다시 이 목록에 의거 탁본첩이 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金石集帖』이다. 따라서 목록집『金石錄』을 토대로 탁본첩『金石集帖』을 검토해야 한다.

1)『金石集帖』의 구성

선행 연구에서 밝혔듯이 교토대에 소장된『金石集帖』은 정집, 속집 합하여 219책이다. 표제는 正集의 경우 '金石集帖', 續集은 '金石續帖'이라 하였다. 표지면에는 수록 비문의 명칭을 墨書한 경우도 있고, 별도의 종이에 기록하여 前面紙에 첩부한 경우도 있다. 표제 아래쪽에는 별도 卷次를 표기하지 않았고, 書根 우측에 千字文順으로 권차를 표기하였다. 이는 목록집『金石錄』의 순서와도 일치한다. 목록집『金石錄』의 구성 및 교토대 소장 탁본첩『金石集帖』의 현전 내용을 정리한 게 [표 3]이다. 33개 항목별로 정집과 속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속집은 13개 항목에만 20권이 편성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김재로 집안의 탁본첩이 5권에 이른다. 이는 속집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표 3] 목록집『金石錄』구성 및 교토대 소장『金石集帖』현전 현황
(◎: 표제면에 금석문 표기 없음 / ×:『金石集帖』현전 확인 불가 또는 미제작)

구 분		목록집『金石錄』구성		교토대 소장『金石集帖』현전 현황
연번	권차(천자문)	항목	正續	
1	天	(1) 前朝殿陵 本朝殿陵 誕基 御迹	正	
2	地			
3	玄			
4	黃			◎
5	宇			
6	宙		續	(續) ◎
7	洪			(續) ◎
8	荒	(2) 嬪園廟 後宮	正	
9	日			
10	月			◎

11	盈	大君王子宗室 公翁主		
12	昃			
13	辰		續	(續) ◎
14	宿	(3) 本宗先世 傍親	正	
15	列			
16	張			
17	寒			
18	來		續	(續) ◎
19	暑			(續) ◎
20	往			(續) ◎
21	秋			(續) ◎
22	收			(續) ◎
23	冬	(4) 先賢 學問	正	
24	藏			
25	閏			
26	餘			
27	成			
28	歲			
29	律			
30	呂			
31	調			
32	陽			
33	雲			
34	騰			
35	致			
36	雨			
37	露		續	(續) ◎
38	結	(5) 死節 節義	正	
39	爲			
40	霜			
41	金			
42	生			
43	麗			
44	水			
45	玉	(6) 相臣	正	
46	出			
47	崑			
48	岡			
49	劍			
50	號			
51	巨			◎

52	闕	(6) 相臣		
53	珠			
54	稱			◎
55	夜			
56	光			
57	果			
58	珍			◎
59	李			
60	柰			
61	菜			
62	重			
63	芥			
64	薑		續	×
65	海	(7) 正卿	正	
66	鹹			
67	河[26]			
68	淡			
69	鱗			
70	潛			
71	羽			
72	翔			
73	龍			◎
74	師			
75	火			
76	帝			
77	鳥			
78	官			
79	人			◎
80	皇			
81	始			
82	制			
83	文			◎
84	字			◎
85	乃			
86	服			◎
87	衣			◎
88	裳			
89	推			
90	位		續	(續) ◎

91	讓	(8) 亞卿	正	
92	國			
93	有			◎
94	虞			◎
95	陶			
96	唐			
97	弔			◎
98	民			◎
99	伐			◎
100	罪			
101	周			
102	發			◎
103	殷		續	(續) ◎
104	湯	(9) 文堂上	正	
105	坐			◎
106	朝			◎
107	問			◎
108	道			◎
109	垂			
110	拱			◎
111	平			◎
112	章			
113	愛			
114	育[27]		續(闕)	×
115	黎	(10) 文堂下	正	
116	首			
117	臣			
118	伏			
119	戎			
120	羌	(11) 名臣	正	
121	遐			
122	邇	(12) 國舅	正	×
123	壹			
124	體		續	(續) ◎
125	率	(13) 駙馬	正	◎
126	賓			◎
127	歸	(14) 勳臣	正	
128	王			
129	鳴	(15) 蔭宰正從二品	正	

26) 목록『金石錄』에는 '河'字卷이 누락됨.
27) 卷次만 있고 실제 내용은 없음.

130	鳳	(16) 蔭堂嘉善	正	
131	在	(17) 遺逸名蔭 名蔭儒	正	
132	竹			
133	白			
134	駒			
135	食	(18) 蔭官	正	
136	場			
137	化			
138	被			
139	草			
140	木			
141	賴			
142	及			
143	萬		續	(續) ◎
144	方	(19) 武將 武臣	正	
145	蓋			
146	此			
147	身			
148	髮			◎
149	四		續	(續) ◎
150	大			
151	五	(20) 儒士	正	
152	常			◎
153	恭			
154	惟		續	미상4
155	鞠	(21) 文蔭儒短折人	正	
156	養	(22) 名文名筆 — 中朝人附 —	正	
157	豈	(23) 湖南人	正	
158	敢	(24) 嶺南人	正	
159	毁	(25) 關西人 西關北關人	正	
160	傷			
161	女	(26) 婦人	正	
162	慕	(27) 世家	正	
163	貞			
164	烈			미상3
165	男			
166	效			
167	才			
168	良	(28) 前朝人 — 國初人附—	正	
169	知			
170	過			미상2

171	必	(28) 前朝人	正	
172	改	— 國初人附—		
173	得	(29) 閭巷人	正	×
174	能	(30) 凡非墓碑 校院 祠廟 閭墟 城臺 校場 戰場 紀事 遺愛	正	
175	莫			
176	忘			×
177	罔			
178	談			◎
179	彼			
180	短			
181	靡			
182	恃			
183	己		續	(續) ◎
184	長			(續) ◎
185	信			(續) ◎
186	使	(31) 戰功	正	
187	可			
188	覆			
189	器			
190	欲			
191	難			
192	量			
193	墨			
194	悲			
195	絲			
196	染			
197	詩			
198	讚			
199	羔			
200	羊			
201	景	(32) 散帙	正	
202	行			
203	維			×
204	賢			
205	克			
206	念			
207	作			
208	聖			
209	德			
210	建			
211	名			
212	立			◎
213	形			

214	端	(32) 散帙	正	
215	表			
216	正		續	(續) ◎
217	空	(33) 釋寺	正	×
218	谷			×
219	傳			
220	聲			
221	虛			
222	堂			
223	習			미상1
224	聽			
225	禍			
226	因			
227	惡			◎

2) 탁본첩『金石集帖』현전 및 逸失 현황

목록집『金石錄』에 수록된 금석문 탁본첩 총 수량은 226권이다. 그중에서 교토대에 탁본첩『金石集帖』과 탁본첩『金石續帖』으로 219권이 현전하고, 규장각에 1권이 따로 전한다. 따라서 현전하는 탁본첩『金石集帖』은 모두 220권이다. 교토대 소장품 중에서 천자문 순서가 미상으로 기록된 게 4권이 있는데, 표지에 기록된 금석문을 토대로 목록집『金石錄』과 대조하면 習(223), 過(170), 熱(164), 惟(154) 등 4권이 확인된다. 또, 앞서 살펴봤듯이 '育(114)' 字卷은 실제 제작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薑(64), 邇(122), 忘(176), 維(203), 空(217), 谷(218) 등 6권의 탁본첩이 일실된 상태다.([표 4] 참조) 다만, 이들 탁본첩에 수록된 내용은 목록집『金石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4]『金石集帖』逸失 현황

연번	천자문	현황	연번	천자문	현황
64	薑	逸失	173	得	규장각 소장
114	育	미제작	176	忘	逸失
122	邇	逸失	203	維	逸失
154	惟	미상4	217	空	逸失
164	烈	미상3	218	谷	逸失
170	過	미상2	223	習	미상1

3) 탁본첩『金石錄』과 탁본첩『金石集帖』의 관계

그렇다면 탁본첩『金石錄』은 탁본첩『金石集帖』과 어떤 관계일까?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탁본첩『金石錄』이 목록집『金石錄』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면 된다. 이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표 5] 참조) 탁본첩『金石錄』61은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목록집『金石錄』에 한 건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탁본첩『金石錄』174는 표제엔 '御筆'이라 부기되어 있는데, 모두 英祖의 어필이다. 그런데, 여기에 실린 탁본 중에서 4종은 목록집『金石錄』에 보이지 않는다. 일종의 刪定을 한 것이다. 탁본첩『金石錄』212는 한 건만 수록되어 있다. 전체가 남아 있지 않아 단언키는 어렵지만, 현전하는 탁본첩『金石錄』의 성격을 추론할 수 있다. 즉, 탁본첩『金石錄』이 탁본첩『金石集帖』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탁본첩『金石集帖』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탁본첩『金石集帖』에 수록된 탁본과 동일한 내용이라도 탁본의 형태나 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탁본첩『金石錄』을 그대로 남겨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표 5] 탁본첩『金石錄』의 목록집『金石錄』반영 사례

탁본첩『金石錄』			목록집 『金石錄』		
권차	제목	비고	권차	제목	비고
61	任參贊碣	任暎	×		
	李咸悅表	李惟謙	×		
	李參判碣	李時芯	×		
	李監司碑	李星徵	×		
	李參判碣	李泂	×		
	金參議表	金耆	×		
174	康舜龍 王旨 後序	1744년	×		
	太祖大王在上王時舊闕遺址	1755년	×		
	太祖大王誕生舊里	1755년	地	永興 太祖誕生舊里碑	前 御筆 御製 趙明履書
	敬惠仁嬪順康園	1755년	荒	御筆順康園表	御製
	淑嬪海州崔氏昭寧墓 昭寧墓碣	1744년	荒	昭寧園舊碑 新表	並入散帙卷
	朝鮮國和敬淑嬪昭寧墓	1753년			
	靖嬪李氏(墓表)	1725년	×		
	御筆 有明朝鮮國孝純賢嬪墓誌石	1751년	黃	御製御筆 孝純嬪誌文	
	御筆 朝鮮懿昭世孫墓誌	1752년	黃	御製御筆 懿昭世孫墓誌	

174	御筆 朝鮮懿昭世孫之墓	1752년	黃	御製御筆 懿昭世孫墓表	
	有明朝鮮國贈慶嬪李氏墓	1755년	荒	御筆慶嬪表	御製
	御筆有明朝鮮王女和平翁主之墓		昃	御筆和平翁主表	入散帙卷
	御製御筆 耆年試眼	1753년	×		
	御製御筆杜門洞碑	1751년	談	御製御筆杜門洞碑	
212	李鳳山碑	李郁	貞(163)	鳳山郡守李公郁碣	
	表		×		
	金星州表		×		
	金水原碣		×		
	吳○○○		미상		
	尹僉正表		×		

4) 탁본첩『金石集帖』제작 과정 및 문제점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탁본첩『金石集帖』의 제작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먼저 탁본첩『金石錄』제작되었다. 이는 알려진 대로 김재로가 纂輯하였다.

② 탁본첩『金石錄』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1차 목록집『金石錄』을 편찬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차 목록 제작은 김재로가 하였고, 이때 권차를 구분하여 붉은색 권점을 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애초에 34개였던 항목이 33개로 조정된 것 또한 김재로가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렇게 제작된 1차 목록집『金石錄』을 근거로 탁본첩『金石集帖』의 제작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표제 하단에 권차 표시가 없는 점을 그 근거로 들 수 있을 듯하다. 다만, 현재로서는 확정이 어렵다.

④ 김재로 사후에 탁본이 추가 수집 및 정리되었다.

⑤ 1차 목록집『金石錄』에 '續'을 증보한 2차 목록집『金石錄』이 정리되었다. 이때 권차별로 천자문이 추가되었다.

⑥ 2차 목록집『金石錄』을 근거로 탁본첩『金石集帖』이 제작되었다. 이 역시 김재로가 처음 제작한『金石集帖』에 속집을 추가한 것인지, 후손들이 탁본첩『金石集帖』을 처음 제작한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다만, 탁본첩『金石集帖』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표지면의 수록 금석문 부기 방법이 변경된다. 부전지 형태로 수록 금석문 목록 작성하여 표지면이 아닌 前面紙에 첩부하고 있는데, 이는 표지면에 기록하기 전에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탁본첩『金石錄』119의 경우, 표지면과 별도로 전면지에 부전지가 붙어 있는데, 이는 목록집『金石錄』의 표기법과 동일하다. 이는 탁본첩『金石錄』이『金石集帖』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 탁본첩『金石錄』에서 탁본첩『金石集帖』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탁본도 확인된다. 영안위 홍주원의 비문 탁본이 目錄集『金石錄』에는 실려 있지만,『金石集帖』126(賓)에는 표제 기록이 없고, 실제 탁본도 실려 있지 않다. 전환 과정에서 착오에 의한 누락으로 볼 수 있는 경우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구 분	목록집『金石錄』	탁본첩『金石集帖』
126(賓)	1. 礪城尉宋公寅碑 2. 海崇尉尹公新之碑 3. 錦陽尉朴公瀰碑 4. 永安尉洪公柱元碑	1. 礪城尉宋公寅碑 2. 海崇尉尹公新之碑 3. 錦陽尉朴公瀰碑 ——(미수록)——

또,『金石集帖』196(染)에는 특이하게도 〈瘞鶴銘〉의 일부가 실려 있다. 이는『金石集帖』의 성격과도 맞지 않는데, 이를 수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모든 금석문이 실린 게 아니라는 점도 탁본첩『金石集帖』의 한계로 들 수 있다. 이는 향후『金石集帖』의 활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탁본첩『金石錄』이 탁본첩『金石集帖』에 모두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 다만, 그 이유는 설명할 수 없다. 또한 탁본첩『金石集帖』의 제작을 김재로가 시작한 것인지도 확정적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5. 맺음말

교토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탁본첩『金石集帖』은 현전하는 조선시대 최대 규모의 금석문 탁본첩이다. 본 논고에서는 이의 纂輯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탁본첩『金石集帖』이 김재로가 찬집한 탁본첩『金石錄』과 관련이 있는데,

그동안 이에 관한 논의 대부분에 적지 않은 오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김재로 찬집의 탁본첩『金石錄』에 대해 살펴봤고, 다음으로 목록집『金石錄』에 대해 알아봤다. 마지막으로 이를 근거로 탁본첩『金石錄』과 탁본첩『金石集帖』의 관계를 살펴봤다.

金在魯 찬집의 탁본첩『金石錄』에 대해서는 일본인 학자 가쓰라기 스에하루(葛城末治)가 원집 226책, 속집 20책, 총 246책인데 39책이 현존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목록집『金石錄』의 기록을 오해한 것이다. 현전한다고 했던 39책은 규장각에 소장되어있는 것으로 유만주가 말한「閣本」일 것이다. 아울러 김재로가 찬집한 탁본첩『金石錄』에는 장서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書背에 '흠흠헌'이란 묵서 기록이 있다. 이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현재 38권이 현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목록집『金石錄』은 탁본첩『金石錄』을 34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목록화한 것이다. 이후 목록집은 2차에 걸쳐 수정되었는데, 1차에서는 항목이 33개로 조정되었고, 2차에는 속집이 증보되고 천자문순의 권차 표기가 추가되었다. 이후 목록집『金石錄』을 토대로 탁본첩『金石集帖』이 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현전하는 탁본첩『金石錄』이 목록집『金石錄』에 모두 포함된 게 아니라, 일부는 목록에서 빠졌다. 또한 탁본첩『金石錄』이 탁본첩『金石集帖』으로 재편되면서 대부분『金石集帖』에 편입되었고, 일부는 탁본첩『金石錄』 형태로 남겨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목록집『金石錄』과 탁본첩『金石集帖』을 비교해보면 탁본첩『金石集帖』(『金石續帖』포함)은 226권이며 교토대학교 219권, 규장각에 1권이 소장되어 있다. 6권이 일실된 상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탁본첩『金石錄』은 김재로가 찬집한 게 맞지만, 목록집『金石錄』은 김재로가 1차 정리하였고, 후손들이 2차 증보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목록집『金石錄』에 따라 탁본첩『金石集帖』이 제작되었는데, 김재로 후손들의 손을 거치면서 정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탁본첩『金石集帖』의 제작을 누가 시작했는지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따라서 탁본첩『金石錄』과 탁본첩『金石集帖』은 별도의 금석문 탁본첩으로 인식해야 한다.

▮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웹.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웹.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 (http://e-kyujanggak.snu.ac.kr)
왕실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yoksa.aks.ac.kr)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koreanhistory.or.kr)

『金石錄』 1책, 필사본, 고려대 중앙도서관 한적실.
『金石錄』 28책, 탁본첩, 고려대 중앙도서관 한적실.
『金石集帖』 1책, 탁본첩, 서울대 규장각.
『金石集帖』·『金石續帖』 219책, 탁본첩, 일본 교토대 부속도서관.
兪晩柱, 『欽英』 4, 영인본, 서울대 규장각, 1997.
葛城末治, 『朝鮮金石攷』, 영인본, 아세아문화사, 1979.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史部』, 동국대 출판부, 2018.
『일본 와세다대학도서관 소장 한국전적』, 국외소재문화재재단, 2020.

구자훈·한민섭, 「金在魯『金石錄』의 구성과 그 특징」, 『韓國實學研究』 21, 民昌社, 2011.
朴眞完, 「朝鮮金石文集成『金石集帖』(京大本)の基礎的研究」, 『京都大學朝鮮·韓國學教育研究ネットワーク報告書·記錄集』(2004年度), 京都大學朝鮮·韓國學教育研究ネットワーク, 2005.
_____, 「京都大學 부속도서관 소장 『金石集帖』자료 현황」, 『해외사료총서15—일본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Ⅲ—』, 국사편찬위원회, 2007.
박철상, 「조선금석학사에서 유득공의 위상」, 『대동한문학』 27, 대동한문학회, 2007.
_____, 「朝鮮時代 金石學 研究」,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2014.
심경호, 「교토대학 소장 금석집첩(金石集帖)에 대하여」, 『민족문화연구』 8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9.

【Abstract】

A Study on the Compilation Process of *Geumseok Jipcheop* (金石集帖) in Kim Jae-ro's Family

Park, Chul Sang*

The *Geumseok Jipcheop* (金石集帖), current collection of the Kyoto University in Japan, is the largest rubbing album of in the Joseon Dynasty. The existence of this rubbing album was known early on, but its specific nature has not been clearly studied. In particular, previous papers referring to this include the wrong contents of *Geumseok Jipcheop* (金石集帖). This paper attempted to correct the existing errors and clarify the nature of *Geumseok Jipcheop* (金石集帖) by examining the Compilation Process of *Geumseok Jipcheop* (金石集帖). To this end, the rubbing album *Geumseokrok* (金石錄) and the list book *Geumseokrok* (金石錄) related to this were review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bbing album *Geumseokrok* (金石錄) and *Geumseok Jipcheop* (金石集帖) was examined. As a result, I assumed that Kim Jae-ro compiled the rubbing album *Geumseokrok* (金石錄) and the list book *Geumseokrok* (金石錄) was first organized by Kim Jae-ro and his descendants second supplemented it. In addition, *Geumseok Jipcheop* (金石集帖) was produced based on this list book *Geumseokrok* (金石錄).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say when and who started the production of the rubbing album *Geumseok Jipcheop* (金石集帖). Therefore, *Geumseokrok* (金石錄) and *Geumseok Jipcheop* (金石集帖) should be recognized as separate rubbing book.

Keywords: *Geumseok Jipcheop* (金石集帖), *Geumseokrok* (金石錄), Kimjaero (金在魯), Heumheumheon (欽欽軒), Epigraphy (金石學)

접수일: 2022.09.29. || 심사일: 2022.10.18. || 게재확정일: 2022.11.14.

* Director, Research Inst. on ancient books, documents and culture of Korea